

한국적 정치학의 주요 쟁점과 실현 방안

김영명 | 한림대학교

한국적 정치학에 대한 담론은 비교적 풍성하나, 그 안에서의 상호토의가 부족하며 그 담론들이 실제 연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이에 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쟁점들을 토의하고, 한국적 정치학의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적 정치학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 특히 한국인에게 중요한 문제를 한국인의 시각으로 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고유한 분석틀을 개발하는, '실용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그것은 학문의 보편성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한국의 대내외적 특수성에 주목한다. 이는 더 근본적인 인식체계의 전환과 역사·전통의 바탕을 강조하는 '근본적 접근'과 대비된다.

한국적 정치학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패권과학의 무관심이나 공격에 직면해 있으나, 그것은 학문 발달 단계에서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류 정치학과 단절하는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독창성을 가미하여 부분적·점진적으로 토대를 쌓아나가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그마저 축적되지 않고 단편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외래이론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면서 한국에 중요한 국내외적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문제들은 한국적 정치학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그 필요성에 대한 담론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 연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주제어: 자아준거적 학문, 근본접근, 실용접근, 보편성, 특수성

지금까지 한국 정치학의 정체성 문제는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이용재·이철순 2006; 김영명 2006a; 하용출 편 2008). 그 주요 내용은 한국의 정치학이 외국 특히 미국 정치학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서 이를 탈피하고 한국 정치학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담론은 비교적 풍성하였지만 두 가지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하나는 그 담론들 안에서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한 담론자들 사이의 상호 토의가 부족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담론에 입각한 실제 연구 사례들이 드물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비슷한 내용의 담론들이 간간이 제시되는 가운데, 담론 자체가 더 구체화되지 못했고, 담론과 실제 연구가 유기적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말이다. 한국적 정치학을 의도한 실제 연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한국적 정치학의 담론 내용과는 비교적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토의하고 한국적 정치학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먼저 말해두고 싶은 것은 한국적 정치학의 담론에 관련되는 가능한 문제들을 모두 토의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 토론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비교적 근본적인 문제들을 먼저 토의하고, 그 다음에 실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적 정치학을 이루기 위해 가능한 접근법들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¹⁾ 그 문제들은 한국적 학문의 성격 및 범위와 그 주제에 관련되는 것들이다.

I. 한국적 정치학의 성격과 범위

1. 한국적 정치학의 성격과 적용 범위

한국적 학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일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적 학문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아준거적 학문'이나 '자생적 학문' 같은 말이다.

우선, 많이 쓰이고 있는 자아준거적 학문이라는 말을 보자(문승익 1975; 정윤재 1999a). 자아준거적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남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태도와 행동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한국 사람이면 한국의 문제를 한국인의 눈으로 보고 한국 실정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하고, 여성이면 여성으로서 가지는 특유한 문제를 여성의 눈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며 이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을 말한다. 그것과 반대되는 타자 준거적인 행동은 남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남의 눈을 빌려서 보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학문이 지금껏 대체로 남이 설정한 문제를 남

1) 이 논문의 논의들은 정치학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사실 다른 사회과학 분야 때로는 인문학 분야에도 대체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학, 사회과학, 학문 등의 용어가 경우에 따라 교차된다.

의 눈과 분석 도구, 이론을 빌려서 연구해 왔다는 점은 지금까지 많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모아진다.

자아준거적인 학문은 대개 그 자아, 즉 '나'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사회 속에서 나올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고유한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은 한국 안에서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미국이나 독일에서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자생적'인 학문이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자아준거적인 학문이 모두 자생적이거나 그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한국 안에서 고유하게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한국의 자생적인 학문을 찾거나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국 역사에서 한국의 자생적 학문이 언제 있었을까? 잘 생각나지 않는다. 한국에서 내세울 만한 고유한 학문이 있었다면 그것은 앞선 외국 학문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한국적인 독특성을 가미한, 선진 외국 학문의 한국적인 '토착화' 정도가 아니었을까? 우리의 학문 환경으로 볼 때 지금 단계에서 자생적 학문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외국 학문을 이용하여 이에 한국적인 면모를 '많이' 가미하여 독창적인 이론이나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면, 그것을 느슨한 의미에서 자생적 학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자생적이지 않더라도 한국적인 학문을 세울 수 있다. 곧, 외국 학문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는 문제 중에서 한국에 중요한 문제를, 외국인의 시각과 이론에 입각하지 않고 연구자 나름대로의 고유한 분석틀을 사용하여 비교적 독창적인 연구를 하면 그것이 한국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많이'라든가 '비교적'이라는 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독창성이 어느 정도면 비교적 독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고정된 답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고,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비교적 독창적인 연구가 된다면 비교적 한국적인 연구로 규정될 수 있으리라 본다.

한국적인 연구는 기본적으로 자아준거적인 연구이다. 곧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의 문제를 연구하고 자기에게 맞는 평가를 내리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남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적인 연구는 이에 하나 덧붙여 한국의 '말과 글'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되도록 한국어 개념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한국적인 정치학은 '정치현상을 한국인의 눈으로 보고 한국인의 말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국인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한국인의 시각을 확립하고 한국어로 된 개념을 개발하며 더 나아가서는 한국학계 고유의 이론이나 방법론을 수립

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이 모두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이룰 수는 없다. 어느 하나든 먼저 착수하거나 모두를 조금씩 추구하거나,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국적인 정치학은 한국 정치만을 다루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국제 관계나 외국 정치, 기타 정치학 대부분의 분야를 한국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도 역시 국제관계, 여성 정치, 환경 정치, 일본 정치 기타 등등에서 한국인에게 중요한 문제가 무엇 인지를 포착하고 이에 대해 고유한 개념, 분석틀, 이론을 수립하면 이것이 바로 한국적인 국제관계론, 한국적인 여성 정치론, 한국적인 일본 정치론이 될 수 있다. 국제정치 연구 분야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강대국과 달리 한국이 처한 독특한 국제 정치적인 위상 때문일 것이다(하용출 편 2008; 김영명 2009).

정도는 덜하나 다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비슷한 경우를 볼 수 있다. 한 보기로, 미국 학자들이 일본의 유교 문화와 집단주의를 일본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한국의 유교 문화와 일본의 유교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한국의 집단주의와 일본의 집단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또 그런 차이점들이 두 나라의 정치와 경제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바로 한국적인 일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정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처지와 한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다를 것이고 또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도 서로 다를 것이다. 이런 다른 점들이 어떻게 두 나라의 여성 정치에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한다면, 그 또한 한국적인 여성 정치 연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적인 정치학은 정치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분야는 아무래도 한국 정치 분야가 아닌가 한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정치 현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외국 학계에서 한국 정치 연구를 활발히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 연구는 아무래도 한국 정치학계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는 바, 그것을 자아준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요즘 들어 한국 정당 연구를 자아준거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김용호 2008; 강원택 2009)을 비롯하여, 이에 대한 자각 뿐 아니라 실제 노력이 일어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2. 본질주의 논란

우리 것, 우리 학문,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으레 부딪히는 질문이,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즉,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한국 사람을 말하고 우리 문제란 한국인에게 중요한 문제를 말한다. 우리 눈이란 한국인의 눈을 말하고, 우리 역사란 조선-한국의 역사를 말한다. 더 깊은 인류학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철학적인 논의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여성, 장애인, 동아시아인, 심지어 인류(!) 등등 다른 '우리'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각각 다른 '우리' 학문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첫째 이 논문의 관심사가 한국적인 정치학이고, 둘째 주류 이론에 대하여 특히 독자성이 문제시되는 분야가 민족국가 단위로 갈라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 학문은 바로 한국의 학문, 또 한국적인 학문을 말한다.²⁾

그런데 이런 생각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가장 강력한 반대는 학문의 '보편성'을 주장하여 한국적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이지만, 학문이나 문화의 대외의존을 비판하는 쪽에서도 반대는 나온다. 앞의 경우는 나중으로 돌리고, 여기서는 우선 뒤의 것부터 보기로 한다.

그 반대론은 한국 사회과학의 '식민성'은 비판하지만 각 문화실체들의 명확한 구분은 거부하는, 이른바 '본질주의' 반대론이다. 예를 들어 홍성민(2007, 402)은 "지금까지 우리는 외국과 한국이라는 이분법적 도식 속에서 '우리만의 것'이 우리 학문의 자생성을 충족시키는 진리라고 간주하는 오류를 범해왔다"고 하면서 "서양과는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우리만의 이론이라는 것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홍성민 2007, 403)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공감을 일으킨다. 이 논문의 핵심 주장 중 하나도 한국적 정치학이 외국 정치학과 단절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견해는 아래에서 볼 한국적 학문에 대한 '실용적' 접근에 주로 해당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좀 더 중요한 논란을 일으킨다. 그의 말대로 "외국과 한국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부정한다면, 무엇에 근거하여 한국적 학문을 이룩할 수 있단 말일까? 그가 강조하는 것은 문화적 실체를 한국이나 미국 또는 프랑스 등으로 고정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일 것이다. 문화는 서로 소통하고 변화하는 것인데 이렇게 구분하여 학문을 접근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다. 또 한민족이나 한국의 고정된 실체를 정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일 것이다. 탈식민 담론에서 흔히 쓰는 말로 나와 '타자'를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홍성민도 그래서 "...탈식민화의 작업 또한 나와 너라는 도식적인 구분을 넘어서는 더욱 총체적 문화 운동의 양상으로 전개될 수

2) 더 자세한 논의는 김영명(2006a).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홍성민 2007, 404).

뒤의 문장들을 읽어보아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그는 식민 문화와 피식민 문화의 일종의 ‘혼합’에서 길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극단적인 근본주의자가 아니라면 이런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완전히 고립된 사회가 아니라면 주변부가 중심부 문화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탈식민론에서 흔히 제기하는 본질주의 비판은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할 수도 있다. 문제는 결국 어떤 형태의, 어떤 종류의, 어떤 비율의, 또 어떤 방식의 혼합일 때 우리는 그것을 한국적 또는 일본적 아니면 독자적 또는 종속적 학문이라고 분류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런 점에 대한 논의가 아닌 이상 위 홍성민의 말이나 더 일반적으로 제3세계 탈식민 담론들은, 적어도 우리의 목적상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³⁾

더 철학적인 면에서 보자면, 탈식민론자들은 어떤 실체의 본질을 상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본질이든 아니든 어떤 실체가 존재하고 그것의 특정한 성격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실체이지 실체 그 자체가 아니다. 실체의 내용이 아무리 바뀌어도 일정 시점, 한 순간에서의 특정 실체는 여전히 존재한다. 모든 다른 현상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치의 여러 모습들 역시 어느 정도든 변하고 있다. 그 변하는 모습 또한 한국 정치의 한 부분이다. 그렇다고 하여 한국 정치의 특징이나 성격을 포착하지 못할 리는 없고, 그것에 대한 ‘한국적’ 접근을 하지 못하라는 법도 없다. 우리가 한국이라는 실체를 상정하고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한국적 학문을 얘기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얘기할 수 없으며,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논의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⁴⁾ 한국적 학문이 완전한 토착 학문이 아니라 외국 학문과 섞이는 것이

3) 한국의 탈식민 담론 자체가 서양의 탈식민 담론을 직수입한 것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역설이다. 에드워드 사이드(Said 1978), 호미 바바(Bhabha 2002) 등 서양 탈식민담론 주도자들이 원래 제3세계 출신이라는 사실을 감안해도 그렇다. 탈식민주의의 쟁점들에 관한 논의는 무어-길버트(Moore 2001) 참조.

4) 이런 점에서 불교의 중관사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불교에서는 만물이 무상하다고 한다. 다시 말해 변하는 않는 실체는 없으므로 구름 같은 그 무상한 존재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비움으로써 해탈할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이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어떤 존재가 실제로 있음도 인정한다. 그런 존재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모든 것은 헛것이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져들 것이니, 이를 막기 위해 현상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초기불교 시대에는 이런 허무주의에 빠져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런 배경 아래 나가르주나(용수)는 중관사상을 창시하였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 제1의제 또는 승의제

라고 하더라도, 그 섞인 한국적 학문을 수행하는 당사자는 여전히 외국인과 구분되는 한국인이라는 실체이다. 더 나아가 그렇게 섞인 ‘한국적 학문’ 역시 ‘외국 학문’과 “도식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역시 실체 대 실체의 대비이고, 본질 대 본질의 대비로 볼 수 있다. 지나친 본질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반대로 어떤 실체의 고유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또한 또 다른 극단이다.

이렇게 보면 진정한 문제는 한국(학문)과 외국(학문)의 단절이나 구분 여부가 아니라 둘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와 탈식민성 또는 한국성의 ‘정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치학이든 다른 문화 현상이든 어느 정도 한국적이면 이를 한국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그리고 한국적인 것과 비한국적인 것의 경계, 또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한국적이든 아니든 얼마나 독창적이면 그 연구를 독창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동일하다. 두 문제 다 정해진 답은 없다. 주관성이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순수하게’ 한국적인 것은 없다. 있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말은 이 현상계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말이라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다. 한국적인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하여 그 둘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 한국적 정치학이 어느 정도 ‘한국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실제 연구 사례들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며, 그 기준은 평가자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을 읽어 가면 그 나름대로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⁹⁾

II. 주류 정치학과와의 관계

이 절에서는 한국적 정치학이 ‘패권과학’(김웅진 2009)으로서의 주류 정치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탐구하고, 한국적 학문을 논할 때 으레 제기되는 학문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라고 하고, 현상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세속제라고 한다. 이 둘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둘은 하나의 다른 측면이다. 이것이 바로 증관사상이다.

- 5) 사실 이런 사변적인 논의는 한국적 학문을 실천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이다. 오히려 실제로 한국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도 이 문제는 한국적 학문을 얘기하다보면 늘 부딪히는 질문이라 굳이 거론하게 되었다.

1. 단절보다는 겹침

한국적 정치학과 아닌 것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말은 한국적 정치학이 서양 주류 학문을 통째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로 이어진다. 그런 단절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그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즉, 빠짐(매물)에서 섞임, 겹침(절충, 혼합), 끊기(단절), 무관계까지이다. 이 가운데 한국적 학문은 외래 학문과의 섞임에서 무관계까지를 말한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기존 주류 학문과의 단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현재 실현 가능한 범위를 잡아야 한다. 위의 용어로 보면 섞임과 겹침이다.

둘 사이의 지적 단절이 비현실적인 이유로는 무엇보다 지적 작업에는 보편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이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것과 미국 정치학이 미국 정치를 연구하는 것에는 보편성이 존재한다. 그 경향과 사용하는 개념과 철학적 기반이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특정 사건의 현상을 관찰하고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련의 지적 작업은 공통된 것이다. 북한의 사회과학이 아무리 남한의 사회과학과 달라도 정치 제도를 살피고 정치인의 사상과 행태를 연구하고 그 둘의 관계를 설정하고 하는 일련의 '정치학' 작업이 다를 리는 없다. 그런 학문의 보편성은 기본이고, 그 기본의 바탕 위에 다름과 특수성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적 공통성과 다름의 특수성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큰지를 일률적으로 따질 수는 없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같은 사람인데, 이 둘이 사람으로서의 같음이 더 중요한지 성별 차이가 더 중요한지를 일반론으로 따질 수 없는 것과 같다. 문제되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적 학문과 서양 주류 학문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치와 외국 정치의 보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양 주류 정치학에서 발달한 이론과 방법론을 받아들이고 이용하면 된다. 이것으로 안 되는 한국의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자아준거적인 접근과 새로운 분석틀이나 이론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도 주류 정치학과와의 단절이,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국적 특수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도 외국의 '보편적' 이론들을 활용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즉, 한국 정치의 특이한 현상에 주목하여 고유한 분석틀을 시도하는 학자라도 미국 정치학의 선진이론들을 활용해야 할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즉 앞선 외래 이론과의 단절보다는 일종의 겹침을 통하여 자아준거적인 이

론을 창출하는 경우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그 사례들로는 남미의 종속이론, 관료적 권위주의론, 해방신학, 일본 천황제론, 독일 국가학, 미국 사회과학 등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연구자들이 자기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개선하기 위해, 외국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이론이나 학풍을 만든 경우들이다. 하지만 동시에 선진 외래 이론들과 완전히 단절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어느 정도냐가 문제가 되기는 한다) 관계를 맺거나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속이론은 남미의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근대화론을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지만, 그것이 거꾸로 미국학계에 수출되었다. 그 방법론은 역사구조적인 방법인데 당시 미국학계를 풍미하던 계량적 방법과는 다르지만, 그 역사구조적 방법론이 남미에서 나왔다고 할 수는 없고 유럽이나 미국에도 이전부터 있던 한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종속이론과 같은 종류의 한국적인 정치학 이론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핵심이다.

2. 사회과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아준거적인 사회과학들은 외래 이론의 보편성을 신봉하기보다는 그 자아가 처한 특수성에 주목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종속이론이나 관료적 권위주의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사회과학의 토대로 삼고 있는 미국 사회과학도 사실은 유럽과는 다른 미국의 특수한 사회적 환경에서 이를 설명하고 개선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다. 그 과정을 집대성 연구한 로스에 따르면, 미국 사회과학의 역사는 '예외주의 국가 이데올로기'에 입각하고 그에 대한 도전에 대처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온 역사이다 (Ross 2008).⁶⁾ 미국이 만약 자신의 고유한 사회적·국제적 환경에 둔감하여 유럽 구대륙의 학문을 그대로 이어받았더라면 과연 지금과 같은 독자적이면서 동시에 세련된 사회과학을 일굴 수 있었을까? 미국의 국제정치학과 지역학이 미국의 세계 제패를 위한 학문적 필요에서 나왔고(김명섭 2001), 토마스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론이 내전에 휩싸인 당시 영국 정치체제를 구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6) 로스(Ross 2008) 자신은 이런 예외주의 국가 이데올로기에 비판적이다. 미국의 독특성에 대한 강조도 과장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과장 되었을지라도 유럽과 미국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차이에 대한 미국인들의 (과장된?) 인식이 미국 사회과학의 바탕이 되었다는 점이 로스 연구의 핵심을 이룬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문화나 지역의 특수한 현실과 특수한 경험에서 나온 특수한 이론이나 방법론이 지적인 체계모니를 장악하게 되면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수인 주류 학자들이 채택하고 사용하고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연원을 둔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문화를 반영한 특수한 것인데도, 전세계에 퍼져 지적·정치적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마치 그것이 보편적 진리인 것처럼 행세했던 것이 좋은 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회과학의 보편성을 들어 한국적 정치학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학문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미국의 사회과학이 보편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위 로스의 말이 잘 전해준다. 『미국 사회과학의 기원』이라는 책 본문의 바로 첫문장이다(Ross 2008, 21).

미국 사회과학은 미국적 기원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실용주의나 프로테스탄트 근본주의 또는 추상적 표현주의와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과학은 근대 미국 문화의 독특한 산물인 것이다. 미국 사회과학이 지닌 자유주의적 가치라든가 실용주의적 경향, 희박한 역사적 상상력, 기술주의에 대한 확신 등은 바로 20세기 미국의 두드러진 특징들인 것이다.

그렇 수밖에 없다. 사회과학이 자신이 탄생한 지역과 문화에 구속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면 학문이나 지식의 보편성은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 즉 사는 모습, 즐기는 모습, 슬퍼하는 모습, 죽는 모습들은 언제 어디에나 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한 사회과학 이론은 보편적 이론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문화에 따라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르다. 그런 다른 모습들의 다른 만큼이 특수성을 구성한다.

그러면 보편성과 특수성은 서로 대립되는 인간 모습의 두 측면인가? 그렇지 않다. 보편성과 특수성은 대립되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연구자에게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이룬다. 우선, 각 지역이나 문화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를 모으면 거기서 일종의 보편성을 찾아낼 수 있다. 다시 말해 특수성이 쌓이면 거기서 보편성을 뽑아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보편성의 덜 보편적인 면모를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 특수성에 대한 관심에서 보편성을 추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일본 사회를 동질사회 또는 수직 사회라고 규정한 분석이 이전에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일본 특수성에 관한 연구이다(申根千枝 1996).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사회 구조와 문화 연구에 관한 비교

연구의 비옥한 토양을 제공함으로써 학문 보편성을 수립할 수 있게 해준다. 다시 말해, 일본은 수직적인데 인도는 수평적이라고 한 나카네(中根千枝)의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수직 사회와 수평 사회의 사회 구조와 구성원의 행태에 관한 일반 법칙을 추출해 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회구조와 인간 행동에 관한 보편 이론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고, 실제로 이런 일반 법칙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과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내재한 어려움이지 특수성에 관한 연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은 아니다.

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는 보편성 못지않게 특수성이 중요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많이 있다.⁷⁾ 미국 사회과학의 경우처럼, 자아준거적인 한국 정치학을 수행하는 효과적인 한 방법이 바로 이런 특수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한국 정치 현상에도 보편적인 것이 특수한 것보다 더 많을지 모르지만, 한국적인 정치학은 그 중 보편적 면모보다는 특수성에 입각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 독자적 정체성을 더 잘 살릴 수 있다. '보편적' 정치학 연구는 미국 학자들이 풍부하고 정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되지만, 한국에 특이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한국 학자들 스스로 이론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당이나 선거 또는 정치경제에 관한 '보편적' 이론들을 통해 한국 정치 연구가 매우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서양 이론들이 탄생한 배경과 다른 한국 정치의 특수한 면모들은 제대로 포착되거나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 정당 정치에 서구 이론들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김용호 2008; 강원택 2009), 한국에 특수한 조건인 분단상황이라든가 압축성장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⁸⁾

7) 여기서 특정 정치현상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구분할 필요가 생긴다. 특수하면서 중요한 문제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도 있을 것이다. 또 보편적이면서 중요한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특수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은 물론 특수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의 경우를 말한다. 한국 정치의 경우, 분단, 압축성장, 고유한 정치문화, 특이한 지역주의 등을 들 수 있으리라 본다.

8) 한국 정치의 특수성에 관한 지식인들의 관심은 일상 대화나 평론집 같은 곳에서나 볼 수 있을 뿐이다(강준만 2006). 그것은 학문적 연구에 비해 쉽기 때문이다.

III. 한국적 정치학의 실현 방안들

지금까지 한국적 정치학에 관한 기본 쟁점 몇 가지를 논의하였다. 이제 한국적 정치학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자. 이를 위해 우선 한국적 정치학을 향한 그 동안의 노력들을 간단히 소개한다.

1. 한국적 정치학을 향한 지금까지의 노력들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적 정치학에 대한 문제제기와 시도는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김영명 2006a; 이용재·이철순 2006), 여기서는 요점만 간단히 소개한다.

우선, 문제제기나 예비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작업들이 지금까지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승익(1975), 하영선(1988) 등이 초기의 보기이고, 최근에는 정당론에서 김용호(2008), 강원택(2009) 등이 더 구체화되고 세련된 논의를 내놓았다. 그밖에도 비슷한 내용의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이용재·이철순 2006). 이들은 모두 이 논문에서처럼 한국의 실제 정치 현실에 입각한 독자적인 분석체계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한국적 정치학의 실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적인 작업들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과학)철학적이거나 방법론적인 논의를 들 수 있다. 서구중심주의를 비판하거나 과학 패권의 지배와 폐쇄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독자적인 방법론을 만들어야 함을 역설한다. 김웅진(2009)은 서구 사회과학의 보편성 신화를 비판하고 과학 패권을 탈피하여 과학 민주주의를 이를 것을 역설한다. 강정인(2004)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 만연한 인식체계의 서구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이에서 탈피할 것을 주장한다. 홍성민(2007)도 비슷한 주장을 펼친다. 이런 작업들은 한국적 정치학 또는 한국적 학문 일반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사상적·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이러한 지적 바탕 위에서 실제로 한국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나 처음 나타난 지는 사실 꽤 되었다. 국제정치학(이호재 1969; 이호재 외 2005), 한국정치(김영명 2006b) 등의 분야에서 간간히 보인다. 이 저작들은 한국의 대내외적 정치현실에 입각하여 이를 설명하기 위한 저자들 나름대로의 분석틀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외교사 연구에서 한국인의 독자적인 시각을 강조한 김용구

(2001)도 이에 속한다. 정치학 바깥에서도 “우리 눈으로 보는 서양사”(강철구 2009) 등의 의미 있는 연구가 나타났다. 이 둘은 공통되게 서양 중심적 역사 편찬과 해석을 비판하고, 한국인 또는 더 넓게는 비서구인의 시각에서 외교사나 서양사를 다시 써야 함을 강조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

위 세 가지 가운데 앞 두 종류의 작업이 한국적 학문을 향한 지금까지 작업들의 대부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 기초 작업들이 비교적 풍부하게 나타났고, 실제 한국적인 정치학 연구는 아직 일천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 정치학이 자리를 잡으려면 그 기초 작업들 뿐 아니라 실제 연구 업적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하리라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타난 실제 연구들은 어떤 접근법을 사용하였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2. 한국적 정치학의 여러 측면

이 논문에서는 한국적 정치학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법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하나는 한국적 학문을 어느 ‘측면’에서 접근하는가에 관련되며, 다른 하나는 어느 ‘정도’로 한국적인 접근을 할 것인지에 관련된다. 이 항에서는 먼저 한국적 학문의 여러 측면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적 학문은 이 모든 측면들을 동시에 시도할 수도 있고 그 중 일부만 시도할 수도 있다.⁹⁾

첫째는 ‘연구 대상’을 한국인의 삶에 직결되는 것으로 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단 상황의 정치적 의미라든가 강대국에 둘러싸인 신흥개발국의 외교 행태라든가 하는 것이 그런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한때 성행했던 한국의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 정치학이 한국 정치 현상을 풍부하게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한국적 정치학이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여 한국적인 정치학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어떤 시각과 문제 설정과 방법론을 동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아래에서 나오는 다른 요건들을 갖추거나 외래 이론이 품지 못하는 한국 정치 현상에 착안하고 연구할 때, 비로소

9) 이 부분은 앞의 제1절 “한국적 정치학의 성격과 범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를 한국적인 정치학 연구라고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는 한국적인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화를 연구할 때 세계 중심 강대국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주변 약소국인 한국의 위치에서 보는 것이다. 지역 연구도 마찬가지다. 일본을 연구할 때 서양인들은 주로 서양적 정신과 일본적 정신을 비교한다. 서양적인 연구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공통의 동양 정신 속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하면, 그것은 한국적인 연구가 된다. 이런 시각의 연구는 정치학계에서 아직 부족해 보인다. 서양 학계의 시각(서구중심주의)을 알게 모르게 추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또 하나의 한국적인 연구 방법은 한국어로 사유하고 '한국어 개념'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금 주요 학술 용어들이 서양 말이나 그 번역어로 되어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 되도록 우리 정서와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말을 개발하여 학문을 하는 것이다. 고유한 한국어 개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형태의 한국적 학문도 아직 저발전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철학적 일각에서 '우리말로 학문하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 같다.

넷째, 한국적인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서양에서 나온 여러 방법론들, 예를 들어 계량적 방법론, 실증주의 방법론 등등은 모두 그것이 탄생한 지역의 문화적 조건을 어느 정도든 반영한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정신적·학문적 바탕에 입각한 한국적인 방법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얼핏 떠오르는 것은 없다. 한국의 전통 학문이나 사상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나온 것은 없는 것 같다.

다섯째, 위와 같은 여러 접근법들에 입각하여 우리 고유의 '분석틀과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¹⁰⁾ 지금까지 나온 소수의 한국적 정치학 사례들은 대부분 이런 접근법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고유한 분석틀 개발은 위 네 가지 접근 모두를 포괄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중 한두 가지에 입각하여 할 수도 있다. 한국 정치과정 연구에서 '3김정치'라는 독특한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에 관한 한국어 고유의 '개념'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한국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화적 요소가 얼마나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틀을 만드는 것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보기들을 든 것은 순수히 이론적인 고려에 따른 것이므로, 현실적 적실성 여부는 각 분야 전공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0) 분석틀이 변수들 사이의 비교적 단순한 관계를 설정한 분석 도구라고 한다면, 이론은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더 정교해지고 더 구체화되고 더 일반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근본 접근과 실용 접근

그런데 위 측면들 가운데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든 간에, 한국적인 정치학을 ‘어느 정도’ (또는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 추구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근본 접근과 실용접근으로 구분한다. 이 두 접근은 모두 한국 정치학이 대외 의존을 극복하고 자아준거적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그 방법에서 한 쪽은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을 택하고, 다른 쪽은 부분적인 접근을 택하는 차이를 보인다. 한 쪽이 좀 더 큰 목표를 가지면서 당장 실현하기가 더 어렵다면, 다른 한 쪽은 목표가 작은 만큼 실행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강조할 점은, 이 둘이 반드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어서, 그 차이는 정도의 차이라는 점이다. 앞에서 본 용어로 볼 때, 근본접근은 ‘단절’ 방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또한 주류 정치학과와 완전한 단절을 상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 근본 접근

여기서 근본접근이라고 하는 접근법, 또는 그 이념형은 서양 주류 정치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인식체계와 전통에 입각한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접근법을 말한다. 세계관과 방법론의 일종의 혁신을 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근본 접근은 세계관이나 방법론 등에서 한국의 전통이나 역사에 대한 천착을 강조한다. 또는 주류 학문과 매우 다른 새로운 학문 체계를 상정한다. 예를 들어 김기정(2008)은 한국 외교사 연구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김명섭(2001, 36) 역시 “인식의 주체가 기반하고 있는 역사적, 사상적 토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제성·박건영(2002, 18)도 비슷하게 “한국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국제정치에 대한 규범적 입장을 장기적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논의들은 위 향에서 분류한 것들 가운데 ‘문제 제기와 예비 작업’에 해당한다. 그 지적들은 모두 옳은 지적들이다. 이런 기초 작업들을 통해 외교과는 다른 한국적이고 독자적인 학문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접근이 한국적 ‘정치학’의 수립으로 이어지려면 그러한 작업이 외교사나 전통 사상 연구 그 자체와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근본접근이 실현성을 높이려면 역사나 전통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가 현대 사회과학에 응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쉽게도 위 담론들은 아

직은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고, 역사와 전통 연구의 중요성 또는 그에 입각한 시각 확립을 강조하는 단계에 머물러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나 사상 연구에 치중하는 그 자체를, 얼마 전까지 일본의 정치학계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 정치학의 독특한 학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이미 한국적 정치학이 부족하나마 상당히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정치사, 외교사, 한국정치사상사들이 이미 한국정치학의 한 분과들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만약 위와 같은 주장이라면, 여전히 정치사, 사상사 등의 연구가 역사학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학과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방향 설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국사 연구가 어떻게 한국적 정치학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별개의 담론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다.¹¹⁾

어쨌든 역사와 전통에 대한 연구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정치학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역사와 전통 자체가 언제나 더 많은 연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어려움 때문인지 몰라도, 근본 접근을 지향하는 논의들은 아직 추상적인 담론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상정하는 한국적 정치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지를 알기 어렵다.

글쓴이 나름대로 그 방법을 한 번 생각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컨대, 조선시대의 (정치)철학이나 연구나 그 이후의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들을 현대 한국 정치 연구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방법을 깊이 있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멀리는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조선조의 정치 과정에서부터 다산 정약용의 정치사상, 그리고 가까이 해방 후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사상들이 현대 한국 정치를 '한국적'으로 연구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당쟁이 현대의 당파싸움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탐구하거나, 안재홍의 다사리 정치이념이 지금의 여야 정쟁에 어떤 교훈을 줄지를 모색할 수도 있다(정운재 1999b).

또 한국의 정당 발전을 한국 역사 속에서 찾으면서, 그것들의 유형과 정치사회적 조건의 상관관계를 추적한다면, 한국 정당에 관한 한국적인 연구를 이룰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정당의 일반 이론에 한 논점을 추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더 일반적으로는 조선조 이후 정치사의 흐름이 현대 한국 정치에까지 어떻게 이어져오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변

11) 이 문제는 이른 바 '국학'이 한국적 학문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한국사, 한국어 연구는 그 자체로 한국적 연구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리라 본다. 이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의 토의를 기대한다.

하였는지를 탐구함으로써, 한국 정치 분석의 출발점을 외래 이론이 아니라 한국 역사에서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는 이미 근본접근에서 실용접근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 전통이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 한국적 정치학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전통과 역사 연구 그 자체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것이 가지는 현대 정치학과 한국 정치에 대한 함의를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것이 서양 정치학과 구분되는 동시에 역사·철학의 인문학 연구와도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2) 실용접근

위와 같은 근본 접근에 비해 실용 접근은 주류 서양 학문과 결별하여 독자적인 것을 구상하기보다는 이를 받아들이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또는 그 안에서 한국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방법을 말한다(이상우 1978; 하영선 1988). 한국의 고유한 사유방식이나 정신적 전통 또는 한국 역사에 치중하기보다는, 실제 존재하는 한국적 상황을 한국인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고유한 분석틀과 이론을 만들려는 방법이다.

물론 이 두 접근법을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 근본접근이라고 하여 현대 사회과학의 접근법을 모두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고, 실용접근이라고 하여 한국의 역사나 인식체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하지도 않는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는 정도 문제이고, 또 각 연구자에 따라 각자의 위치가 연속선상의 어디인가에 자리할 것이다. 다만 실용접근은 전자(고유한 인식체계와 역사전통)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되 후자(사회과학적 개념이나 분석틀 개발)에 더 치중하는 것이다. 이는 근본 접근에 비해 부분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그만큼 실행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노력들이 실제 성과를 이룰 수 있으면 이것이 쌓여서 한국적 정치학의 터를 넓힐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남미에서 나온 종속 이론이나 관료적 권위주의론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적(자아준거적)이면서도 동시에 보편성을 지닌 정치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¹²⁾ 실제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적 정치학의 실제 연구 성과는, 아무리 미흡했다라도, 거의 다 실용 방법을 통해서 일어났다.

실용적 한국 정치학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이를테면, 한국 민주주의 연구에서,

12) 종속이론, 관료적 권위주의론의 보편성은 이론 '적용'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적' 보편성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 이론들이 남미 바깥의 지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이론이 가진 방법이나 개념, 뼈대 등은 남미 바깥을 설명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이다.

국가론, 계급론, 민주주의론 등 외국 이론들을 활용하되, 여기에 없는 요소들, 즉 분단이라든가 한국 고유의 정치문화 같은 변수들을 감안하여 새로운 분석틀을 만드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에서도 미국 학계의 앞선 연구들을 받아들이더라도 미국과 다른 한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반영한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패권 안정론, 세력균형론 같은 것들이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필요성에서 나온다면, 한국의 국제정치학은 거기에 없으면서 한국에 중요한 이론들, 이를테면 하위동맹국 이론, 약소국 또는 중간국 외교론, 신흥공업국 국제정치론 같은 것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서술하지 못하고(각각의 연구주제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 동안 나온 '실용적'인 한국적 정치학의 실제 연구 성과들을 몇 가지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이호재(1969)는 약소국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치의 양상을 강대국의 수와 국내 정치력의 집중화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약소국 중심의 지역적 소국제정치체제' 모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적 정치학을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대규모 이론은 강대국에게 양보하고 한국을 중심으로 한 중소규모 이론을 일굴 것을 권한다. 이를 한반도 국제정치론에 수정 적용한 이호재 외(2005)는 한반도 중심의 지역적 양극체제 하에서 한국 정치세력들이 선택 가능했던 통일·외교 노선들을 5가지로 분류했다. 즉, 친소반미 외세의존형, 친미반소 외세의존형, 친소반미 내세의존형, 친미반소 내세의존형, 친미친소 내외세 절충형으로 나누고, 이들의 전략, 행동, 역학관계의 변화를 추적한다. 김영명(2006b)는 한국의 정치변동을 한국에 고유한 분단 상황과 보편적이면서도 한국적 특수성이 동시에 있는 산업화 및 힘겨룸의 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분석한다. 이 경우들은 모두 기존 정치학의 범위를 크게 넘지 않으면서 자신의 고유한 분석틀을 창조한 경우들이다. 특히 앞의 경우들은 한국적 정치학의 업적이 후속 연구로 이어진 드문 사례에 속한다.

이와는 조금 달리 구영록(1998)의 한국 국가이익 연구는 일단 미국 학계의 연구들에서 출발하지만, 거기에 한국의 특수성을 덧붙여 강조한다. 그는 한국 외교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특히 유교적 정서인 '의리'로 파악한다. 이 경우는 기존 국제정치학의 국가이익 개념의 구성요소에 한국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이를 한국화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적 정치학 연구의 몇몇 사례들이 존재한다(김용구 2002; 김정원 1996). 이런 노력들은 모두 본격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한국적인 연구들은 아닐지 모르나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한국적인 연구들이다. 위에서 말한 외래 이론과의 '섞임' 또는 '겹침'에 해당한다.

아쉬운 점은 이런 한국적인 연구들이 후속 연구 없이 개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는 사실이다. 특정 연구를 처음 수행한 연구자 본인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개인이 후속 연구를 계속 하는 것이 쉽지않은 않으므로 학계의 동료나 후학들이 이를 이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학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주류에서 비껴나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학계에서 하나의 흐름이나 학풍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치학의 패권 속에서 이러한 실용적 '한국 정치학'이 제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미 존재하는 소수의 한국적 정치학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실용 접근의 한 갈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자 각자가 모두 자기 고유의 것을 만들려는 어려운 작업에 매달리기보다(물론 그것도 해야 하지만), 이미 있는 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실용적인 방법인지도 모른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한국적 정치학이 한국 정치학계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게 될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이 논문은 한국 정치학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노력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쟁점들을 토의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한국적 정치학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 특히 한국인에게 중요한 문제를 한국인의 시각으로 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고유한 분석틀을 개발하는, 실용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그것은 학문의 보편성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한국의 대내외적 특수성에 주목한다. 이는 더 근본적인 인식체계의 전환과 역사·전통의 바탕을 강조하는 근본적 접근과 대비된다.

이러한 노력들은 사실 기존 주류 정치학, 즉 패권과학의 무관심이나 공격에 직면해 있으나, 그것은 학문 발달 단계에서 언제나 나타나는, 극복해 나가야 할 현상이다. 한국적 정치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류 정치학과 단절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독창성을 가미하여 부분적·점진적으로 토대를 쌓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그마저 축적되지 않고 단편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외래이론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면서 한국에 중요한 국내외적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문제들이 한국적 정치학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그 필요성에 대한 담론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 연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가 있다. 앞으로 한국 정치학의 독자적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실제 연구 작업들이 많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10년 3월 24일

심사일 2010년 4월 19일

게재확정일 2010년 5월 24일

참고문헌

- 강원택. 2009. "한국 정당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정당학회보』 제8집 2호, 119-141.
- 강정인. 2004.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 서울: 아카넷.
- 강철구. 2009.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사 1』. 서울: 용의 숲.
- 구영록. 1995. 『한국의 국가이익: 외교 정치의 현실과 이상』. 서울: 법문사.
- 김기정. 2005. "21세기 한국 외교의 좌표와 과제: 동북아 균형자론의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1집 4호, 149-174.
- _____. 2008. "한국 외교정책 연구의 과제." 하용출 편, 『한국 국제정치학의 발전과 전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명섭. 2001. "세계정치학과 국제정치학: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위한 모색." 『세계정치연구』 제1권 1호, 3-38.
- 김석근. 1999. "주변부 지식인의 허위의식과 자기 정체성."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정치학: 현황과 전망』. 서울: 법문사.
- 김영명. 2006a. 『우리 정치학 어떻게 하나?』. 서울: 오름.
- _____. 2006b. 『한국의 정치변동』. 서울: 을유문화사.
- _____. 2009.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실재사례와 바람직한 방향." 『글로벌정치연구』 제3집 1호, 2-30.
- 김용구. 2001.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1866-1882』. 서울: 문학과 지성사.
- _____. 2002. 『외교사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원.
- 김용호. 2008. "한국 정당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성찰." 『한국정당학회보』 제7집 2호, 65-81.
- 김웅진. 2001. 『신화와 성화: 과학 방법론의 패권 정치』. 서울: 전예원.
- _____. 2009. 『과학 패권과 과학 민주주의』.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김정원. 1996. 『한국 외교발전론』. 서울: 집문당.
- 김학노. 2008. “국제정치(경제)학의 미국 의존성 문제.” 『국제정치논총』 제48집 1호.
- 문승익. 1975. “자아준거적 정치학: 그 모색을 위한 제언.” 『국제정치논총』 제13-14집, 111-118.
- _____. 1999. 『자아준거적 정치학의 모색』. 서울: 오름.
- 백창재·정병기. 2007. “로스의 논의를 통해 본 한국 사회과학의 정체성 모색.” 『한국정치연구』 제16집 2호, 1-25.
- 이상우. 1978. “한국 국제정치학의 정립을 위하여: 소망스러운 발전 방향과 과제의 확인.” 『한국 정치학회보』 제12집, 137-148.
- 이용재·이철순. 2006. “한국 정치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대한 서지적 고찰.” 『한국 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집 1호, 83-107.
- 이용희. 1962. 『일반 국제정치학(상)』. 서울: 박영사.
- 이호재. 1969. 『한국 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이승만 외교와 미국』. 서울: 법문사.
- _____. 2005. 『한국적 국제정치이론의 모색』. 서울: 화평사.
- 전재성·박건영. 2002. “국제관계이론의 한국적 수용과 대안적 접근.” 『국제정치논총』 제42집 2호, 7-26.
- 정윤재. 1999a. “자아준거적 정치학과 한국 정치사상 연구: 문제 해결의 접근적 탐색.” 정윤재 외, 『한국 정치사상의 비교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_____. 1999b. 『다사리국가론: 민세 안재홍의 사상과 행동 연구』. 서울: 백산서당.
- 하영선. 1988. “한국 외교정책 분석틀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28집 2호, 3-15.
- 하용출 편. 2008. 『한국 국제정치학의 발전과 전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홍성민. 2007. “한국 정치학의 정체성과 탈식민주의: 한국 학문의 언어 구조와 욕망의 정치학.” 홍성민 편, 『지식과 국제정치』. 서울: 한울.
- Bhabha, Homi K. 저. 나병철 역. 2002.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서울: 소명.
- Ross, Dorothy 저. 백창재·정병기 공역. 2008. 『미국 사회과학의 기원 1』. 서울: 나남.
- Moore-Gilbert, Bart 저. 이경원 역. 2001.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서울: 한길사.
- Said, Edward W. 1978. *Orientalism*. Vintage Books.
- 中根千枝 저. 양현혜 역. 1996. 『일본 사회의 인간 관계』. 서울: 소화.

ABSTRACT

Korean-style Political Science: Its Issues and Practical Approaches

Yung-Myung Kim | Hallym University

There is no dearth of discourses on political science, Korean style, but they generally lack inner-discussions on related issues. Also, the discourses do not develop into scholarly studies. This article discusses some of those issues which we find more fundamental, and seek an effective way to reach the end, by suggesting to adopt what might be called a “pragmatic approach” as compared with a more “fundamental” one. This approach, rather than turning completely away from mainstream political science, aims at building theoretical frameworks explaining the particularities of Korean or Korea-related politics, leaving more “universal” issues to mainstream political science studies. This is a rather step-by-step approach toward achieving the Korean-ness of political science, dealing with specifically Korean nature of Korean politics and establishing their own perspectives on various political issues, domestic or international. This effort may fill the gap found in the existing political science studies which generally neglect the Korean particularities of political phenomena, their issues and perspectives as well. We do find some efforts on actually undertaking such endeavors, but they exist only in isolation without being accumulated. Korean political scientists need to take more effort on developing the “Korean” studies of political science, stepping beyond merely repeating discourses on their necessity.

Keywords: self-relevant studies, fundamental approach, pragmatic approach, universality, particularity